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을 마치고...

제53회 사법시험 2차 수험생

최○○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우연찮게 고시계와 인연을 맺게 되어, 제53회 2차 사법시험 수험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매 시험이 그렇듯 후회없이 시험을 치렀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돌아보면 미흡했다 싶은 아쉬움이 많은 분도 계시겠죠.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올해 네 번째 2차 시험을 치렀지만, 최종 시험을 마칠 때까지 매 2차 시험 직후 했던 다짐을 담금질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II. 2011년 3월~5월 (3순환 이후 시기)

(1) 글재주나 표현력이 부족한 때문인지, 항상 꼽히는 쟁점이라도 막상 백지 답안지를 놓고 보면 시원스럽게 서술해나가기 어렵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컨대 헌법소원에서의 가치분 문제, 행정법의 부관소송 문제나 형사소송법의 공범간 증인적격 같은 쟁점은 중요성, 수험 경력에 비추어 부담없이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이 시기에 여기서 발목을 잡히는 걸까?”하는 자괴감이 컸습니다. 부랴부랴 학원 모의고사 해설지 중심으로 10점 분량으로 정리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3순환 진도일정에 차질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어찌보면 1~2순환 시기에 모범적인 수험생이 했어야 할 작업을 등한시했던 대가이고 모험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2) 신림동에서 말하는 4-2-1 작전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시험 2주 전에도 회사법만 3일을 볼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 제 주위에 그런 모범생이 없어서였는지 위축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최면(?)을 걸며 공부했습니다. 근거없는 주관적 평가일지라도, 자신있는 과목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쟁점 위주로 보거나, 자신없는 과목은 조금은 과도하

다 싶을 정도로 시간투자를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Ⅲ. 시험 첫날

1. 전날 ~ 헌법 시작 전

이틀 전엔 헌법에 하루를, 직전 날엔 행정법에 온전히 하루를 투자했습니다. 본래 책읽는 속도가 느린 탓에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쟁점 위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시도 시간이 부족해, 결국 두어 시간 정도만 눈을 붙이고 시험직전 1시간 쉬는 시간에 미룰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침 내내 비가 많이 와서 시험장까지 가는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려 8시30분 경이 되어야 도착했습니다. 택시로 가는 동안 핵심암기장을 보다가 차안에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눈감고, 귀막고’ 편안히 피로를 취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헌법에서 못본 부분부터 보고 미리 작성했던 중요 쟁점정리노트를 훑었습니다.

2. 헌법

1문을 읽고 초안으로 잡은 쟁점이 배점에 비해 부족하다 싶어 2문으로 넘어갔는데, 다행히 쟁점이 충분히 잡히기에 2문 먼저 작성했습니다. 2문에 지나치게 치중해 1문에 소홀하지 않을까 연신 시간을 확인하며 분량 조절에 노력했습니다. 1문은 다시 읽어도 부분적으로 배점과 쟁점 비율이 맞지 않아 불안함이 몰려왔고 시간에 쫓겨 답안작성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행정법

전날 진도범위를 모두 보지 못했다는 불안감 때문에 식사는 10분만에 끝내고 쉬는 시간 내내 행정법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전날 미뤄둔 부분과 모의고사 때 작성해 둔 모범답안 위주로 보았습니다. 후사법은 소설문이 전형적인 쟁점 단위로 블록 조합하듯 구성된다는 느낌 때문에, 전형적인 쟁점은 초안 작성없이 먼저 답안작성하고 나머지 설문 쟁점과악에 주력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Ⅳ. 시험 둘째날

1. 상법 시험 시작 전까지

둘째날 시험 과목이 양과 난이도 면에서 가장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밤을

완전히 새워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시험에 지장을 줄까봐 근처 병원에 가서 영양제 링거주사를 맞으면서 한 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습니다. 첫날 시험이 끝나고 기진맥진한 상태였는데 체력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소법을 4시간 정도 본 후 나머지는 상법에 투자했는데, 회사법-어음법-보험법-상충/상행위 순서로 볼 계획이었는데,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어음법의 반 정도 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시험장에서는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법까지는 보았는데, 상충/상행위가 문제였습니다. 시각 15분 전부터 A급 쟁점 위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상법

문제를 펼쳐 2문으로 운송인 관련 문제가 25점으로 출제된 것을 보고 난감했습니다. 상행위 문제라도 누구에게나 불의타라고 최면을 걸면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어음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회사법은 배점에 비해 1회독만으로 쟁점이 충분히 보이지 않아 2문의 2를 먼저 해결하고, 1문에 집중하되 2문의 1은 10분만 투자해 조문 인용과 포섭에 치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할 때 주위 분들 답안작성 내용을 보았는데, 다들 뻑뻑하게 채웠길래 내심 당황스러웠습니다.

3. 민사소송법

상법시험으로 단련이 되었는지, 2문의 2는 소위 불의타성 문제인데도 그다지 당황스럽진 않았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니 민사소송법은 예년과 같이 중요 쟁점 위주로 출제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1문의 경우, 상계항변과 기관력, 중복소송의 문제는 학원가에서 꼽히는 쟁점이지만 학원 모의고사와의 차별성을 위해서인지 상계항변에서 중복소송이 문제되는 취지를 기관력 문제로 우회해서 출제하지 않았나 하는 출제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공격방법의 구별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꼽히는 쟁점이었는 데, 작년에 전면 출제되었던 소변경과 재소금지의 측면에서 출제되었는데 배점이 많아 분량 조절이 신경쓰였습니다.

V. 시험 셋째날

1. 형법 시작 전까지

이틀이 지나고 나니 마음에 여유가 조금 생기는 듯 했습니다. 연달아 밤을 쉴 수 없어 신림동에 도착한 후 저녁먹고 씻은 후 두어 시간 정도 눈을 붙였

습니다. 형법은 기본서를 볼 엄두가 나지 않아 1순환 때부터 작성해 두었던 모의고사 답안 위주로 보았습니다. 사실 1순환부터 3순환까지 모두 합치면 웬만한 사례집 분량이 되기 때문에 1회독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결국 시험장에 도착하고 시험 시작 전 아침 시간 내내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2. 형법

간략하게 서술해서 많은 쟁점을 다뤘던 예년, 특히 작년 문제와 달리 이재 상 교수님 형법사례 문제집에서 보았던 문제 스타일과 유사하다고 느껴져 오히려 당혹스러웠습니다. 2문 먼저 해결하고 1문을 작성했는데, 역시나 분량이 배점에 비해 부족해 분량이 부족한 부분을 화살표로 이어쓰는 등 고군분투 하였지만, 지금도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3. 형사소송법

모 강사님이 3순환에서 강조했던 판례 사안이 사례로 구성되어 당황스럽진 않았습니다. 쟁점 자체는 부분적으로 접해보지 못한 것도 포함되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수험가에서도 중요하게 꼽힌 쟁점으로 구성되어 다행이었지만, 역시나 시간에 쫓기는 문제가 부담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는 결국 조문 3~4개와 사안 포섭이 관건이라는 생각에서 적용해보니 결론 자체가 수확문제 해결하듯 답이 나와, 일단 믿고(?) 답안 작성하였습니다.

VI. 시험 넷째날

1. 1교시 시작 전까지

셋째날까지 시험이 끝나자 기나긴 수험생활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민법이 남아있는데도 왜그리 흥가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력 GAUGE도 붉은 영역에서 푸른 영역으로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물권은 특히 정확한 암기가 되지 않으면 답안 작성이 곤란했기 때문에 물권 먼저 보고 가족-채권-민총 순서로 보는 계획을 세웠지만, 가족까지 보고 나머진 시험장에서 보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1교시 민법 I

2문은 이중매매 법리와 565조 해제권 관련 쟁점이 나름대로(?) 뚜렷하게 읽혀 시간 문제 외에 부담이 덜했지만, 1문의 경우에는 특히 4문의 쟁점이 보이지 않아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안을 총 세 번까지 읽어보았지만 쟁점이 보이

질 않아 공란으로 비워두기로 하고 나머지 문제 먼저 어떻게든 시간 내에 작성하고, 여유가 생기면 보너스(?)라고 맘먹고 더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답안 제출시 주위를 둘러보니 빈 답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보여 다행이었습니다.

3. 2교시 민법 II

1교시를 마치고 쟁점의 무게감에 비해 최근 사법시험에서 소홀히 다뤄졌다는 느낌 때문에 “3문은 채권자취소권이다”라고 예상, 점심을 반납하고 채권자취소권 파트를 살살이 훑었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출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배점이 가장 큰 소2문 역시 찾아낸 쟁점과 분량면에서 비례가 맞지 않아 다른 설문 먼저 답안 작성하고 나중에 사안을 반복대조하면서 쟁점을 더 찾아내려 해보았지만 그다지 성과가 없었고, 가정적 논변으로 사안 포섭을 꼼꼼히 해보려 했지만 시간의 한계 때문에 역부족이었습니다.

VII. 시험장을 나서며

나흘 내내 내린 비는 시험장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유를 주지 않고 쏟아내렸습니다. 시험제도의 변화와 나이 문제 때문에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실감하면서, 흥가분하면서도 떨떠름하고 얼얼한 느낌은 잘 가지지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린 후 받는 통증처럼, ‘자기만족’이라는 최면이 풀린 후 시험장에서 썼던 답안에 대한 부끄러움과 민망함 때문에 영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덕을 쌓는 심정으로 저녁마다 동네 거리를 돌며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는 간절한 마음(!)으로 위안을 삼을 뿐입니다.